

에이즈퇴치에 힘쓰는 모든 이가 희망의 등불

강성환

구세군대한본영 사령관

프랑스 대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던 시에예스(Emmanuel Joseph Sieyes)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힘은 부와 명예나 권력을 독점하는 특권층이 아니라, 질서와 평화, 행복을 이루기 위해 법을 준수하며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전체 국민(보통 사람)들이라고 하였으며 이들을 제3신분이라고 표현하였다.

그 가운데서 HIV/AIDS 감염인들을 지지하고 돕고 있는 단체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HIV/AIDS 교육과 예방활동 및 감염인 케어봉사를 하며 성실히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분들이야말로 시에예스가 말하는 희망과 행복을 추구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힘ियो, 사회공동체의 그늘진 곳에 희망의 등불을 밝히는 제3의 신분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총 4,200만 명이 넘는 HIV 감염인 수와 총 2,400명이 넘는 국내 HIV 감염 현황은 그 수치의 빠른 증가에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빠른 증가수치는 곧 감소하리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정부, NGO의 끊임없는 노력뿐만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제3의 신분인, 자원봉사자교육이수자, 전문예방교육 강사 이수자들, 감염인 케어봉사자분들의 활약이 서서히 그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감염인들에게는 'AIDS를 이길 수 있다' 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고통은 언제나 유리한 결과를 가져다준다고 귀스타브 프로베르는 말한 바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 나라의 제약 및 관련회사에서는 새로운 AIDS치료제 개발에 힘을 쏟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희망적인 것은 편견과 차별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회가 되기 위한 노력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AIDS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차별과 편견의 벽을 허물기 위한 예방활동과 교육 그리고 케어봉사활동 그리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통의 법을 준수하고 공통의 질서를 유지하며 묵묵히 열심히 자신의 몫을 감당하는 희망의 사람들 - 이런 분들이 사회와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전체 국민이다 - 이 필요하다. 에이즈퇴치를 위해 힘쓰는 모든 보건관련기관의 사람들, 에이즈 관련 NGO들과 감염인 여러분 그리고 HIV/AIDS에 대한 이해와 관심 그리고 후원자들 모두가 바로 2004년도 새해를 밝힐 희망의 등불들이다.